

GLiMPSE 귀국 보고서

인적사항

성명	김화진	학번	
휴대전화		이메일	gohwajji@gmail.com

대학원명	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, Master of Development Policy (국가) Korea
기 간	2017.09~2018.06 [귀국일: 2019년2월 17일]
첨부서류	GLiMPSE 귀국보고서 (600자 이상; 10pt. 1줄 간격)

귀국보고서를 작성하실 때에 유의하실 사항입니다.

※ 보고서의 목적은 차기 GLiMPSE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한 정보 공유임
 ※ 본 표지 이외에 2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를 제출하며, 다음 내용을 포함되도록 함

1. 제휴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(기후, 지리적 위치, 생활관련 사항)
2. 제휴 대학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
3.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, 평가, 후배를 위한 제안
4.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, 제안 등
5.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
6. 비자, 출·입국,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
7.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
8.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

교학처장 귀하

2018년 7월 19일

작 성 인 : 김화진 (인)

1. 제휴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(기후, 지리적 위치, 생활관련 사항)

벨기에는 직항편이 없어 무조건 경유를 하고 올 텐데, 핀에어가 유학생 우대로 수하물을 2개까지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. 한국에서 남은 짐을 택배로 보낸 것을 벨기에에서 받을 때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복불복이지만, 세금 내야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내야하므로 웬만하면 택배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도착하면 학교에 등록하고, 시청에 가서 거주 사실 확인 받고, 은행 계좌도 개설하는 등 초기엔 바쁜 일이 꽤 있습니다.

2. 제휴 대학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

각 과목마다 매 수업에 대한 Reading을 내어주는데, 거의 모든 학생이 그걸 다 읽어오는 분위기입니다. 실제로 reading을 읽어 두는 것이 나중에 시험 볼 때 유리합니다. 수업은 대부분 open discussion으로 진행되지만, 과목 특성에 따라 lecture형식도 있는 편입니다.

3.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, 평가, 후배를 위한 제안

수강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, 필수 과목이 많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선택권이 많지 않습니다. 성적은 2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되는데, 생각보다 점수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. 10/20을 넘기지 못하여 재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많습니다. Oral 테스트가 있는 과목도 있어서, 가능하다면 수업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틈틈이 정리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

4.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, 제안 등

외식비가 비싸기 때문에 요리를 직접 해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. 가까운 아시안슈퍼에서 필요한 대부분을 구할 수 있고, 독일 사이트에서 주문해서 한국 식재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. 학생 식당의 요리는 싸지만, 저 같은 경우 1년 동안 딱 3번 먹은 것 같네요.

5.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

동아리 활동은 거의 못본 것 같고, 프로그램 내에서 학기 당 한 번씩 투어를 가는데, 전체의 20%미만의 학생이 참여하는 수준입니다. 대신 EU기관 방문은 가볼 만 한 것 같았습니다.

6.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

유럽에서는 KDI와 달리 정성적 연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KDI에서 정량적 연구 방법을 배우고, 이 곳에 와서 정성적 연구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, 향후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.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과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법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저는 이 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바로 UN기구에서 인턴을 시작하게 되어 정말 잘 왔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.

7.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

기회가 있다면 꼭 나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.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, 그 과정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나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럽의 겨울은 10월말부터 4월말까지로 상당히 길고 생각보다 많이 춥고 우울합니다. 근처 EU국가로 자유롭게 비교적 싸게 여행을 다닐 수 있어서 겨울을 버틸 수 있었지만, 만약 1년이 아니라 1학기 과정으로 와야 한다면 겨울은 좀 힘들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유럽은 겨울 학기가 1학기라, 사람을 사귀기에는 여름보단 겨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

